

『深齋日記』를 통해 본 근대전환기 深齋 曹兢燮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시대적 대응양상*

전 송 희**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鼎山 이주와 네트워크 확장 과정 |
| 2. 嶺南 지역 내의 활동 양상과 교류 네트워크 | 1) 鼎山 이주와 지식인 네트워크의 재편 |
| 1) 昌寧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활동과 네트워크 | 2) 鼎山書堂 건립과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 |
| 2) 嶺南 지역 내 외연 확장과 네트워크의 재편 |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전환기를 살았던 深齋 曹兢燮(1873~1933)의 자필일기인 『深齋日記』를 통해 조공섭의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과 시대적 대응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재일기』는 33년에 걸친 기록으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5522).

** 부산대학교 강사

조공섭의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 과정, 그것을 통한 시대적 대응의 의미를 밝히는데 매우 주요한 텍스트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일기에 기록된 인물 교류와 지역적 이동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조공섭의 지식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살폈다. 그 결과 조공섭의 네트워크는 세 단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초기 창녕 시기(1898~1903)에는 혈연, 지연, 학맥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둘째, 1904년 이후에는 밀양, 의령, 인흥 등으로 활동 범위가 확장되며 영남 지역 학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셋째, 1914년 정산이주 이후에는 재경지식인, 망명지식인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네트워크의 질적 도약이 있었다. 특히 1919~1920년 정산서당 건립은 조공섭이 단순한 은자가 아닌, 지식인 네트워크의 매개자이자 조직자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공섭의 사례를 통해 근대전환기 유교 지식인의 대응 전략으로서 ‘은거의 역설’을 발견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은거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과 근대의 단절이 아닌, 연속과 변용을 통한 지적 전통의 재구성 과정을 미시사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심재일기, 조공섭, 정산서당, 근대전환기, 지식인 네트워크

1. 머리말

개인이 남긴 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 당대 지식인의 내면세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적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인의 일상적 실천, 인간관계의 역동성,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

한 대응과 사상적 태도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기가 동일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간략한 메모 형식의 일기는 내면적 서술의 부족으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深齋日記』는 이러한 메모형식의 일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深齋日記』는 19세기에서 20세기, 이른바 근대전환기를 살았던 深齋 曹兢燮(1873~1933)이 33년에 걸쳐 남긴 기록으로, 형식상 간결한 메모에 가까워 그동안 학계의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¹⁾ 그로 인해 일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 관계망과 지식인 네트워크, 지역적 이동 양상에 주목한 종합적 분석이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深齋日記』는 1898년부터 1931년까지 33년 동안의 기록으로, 현재 1904년, 1919년, 1921년, 1925년까지 총 4년간의 일기가 누락되어 모두 29년간의 일기가 전해지고 있다. 『深齋日記』의 기록 방식은 달력 위에

1) 현재까지 진행된 『深齋日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전송희, 『『深齋日記』의 자료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동양한문학회연구』 61, 동양한문학회, 2022와 『深齋 曹兢燮의 成學過程과 學的實踐 -『深齋日記』를 토대로 한 생애사적 고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두 편이 있다. 다만 『深齋日記』를 통해 드러나는 조공섭의 폭넓은 교유관계와 그 네트워크의 특성, 그리고 근대 전환기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조공섭의 생애와 문학에 주목한 연구로 강동욱, 『심재 조공섭의 학문성향과 文論』,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강구율, 『深齋 曹兢燮 詩世界の 諸樣相 研究』,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김낙진, 『曹兢燮의 共和主義 비판과 朱子學적 근거: 梁啓超 비판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3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김진균, 『심재 조공섭의 도덕문장 추구논리』,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송혁기, 『曹兢燮의 金澤榮 諸家文評 비판과 그 비평사적 의의』, 『동양한문학회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유영옥,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 연구』, 『동양한문학회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임종진, 『深齋 曹兢燮의 修養論』,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이 있다.

해당 날짜와 관련된 기록을 적어 두었는데, 해당 날짜의 맨 위에는 그날의 날씨를 ‘晴’, ‘陰’, ‘晴而陰’과 같이 간단한 형식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자신의 행적이나 방문한 이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찾아온 이의 경우 ‘○○來’의 형식으로 기록하였고, 인물에 대해서는 자 또는 성씨로 간단히 기록하였다. 자신의 행적은 ‘如○○’, ‘至○○’, ‘出○○’, ‘低○○’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이 방문했던 지명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일기의 주요 내용은 날씨, 행적, 교유에 대해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공섭의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직 자신의 행적과 방문한 사람들, 주고받은 편지들에 대한 기록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기 자료로서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深齋日記』는 조공섭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큰 텍스트이다.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간단한 내용들은 조공섭의 삶의 주요 행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일 뿐만 아니라, 관련 작품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 교유 양상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제공한다. 편집의 과정을 거쳐 간행된 문집을 통해 단편적으로 생애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深齋日記』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은 실재 조공섭의 생애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深齋日記』에 담긴 단편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공섭의 생애와 교유 양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성리학적 가치와 지역적 학맥에 기반한 전통 지식인 집단의 문화와 관계망 속에서, 조공섭이 전환기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며 자신만의 위치를 설정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深齋日記』에 담긴 단편적 메모들을 시공간적으로 재구성하여 조공섭의 삶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복원할 것이다. 일기가 지닌 연대기적 특성과 반복적 행적 기록은 공식 문집에서 누락된 일상적 실천과 사회적 관계망을 드

러내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일기에 기록된 인물, 장소, 활동 간의 관계망을 설정할 것이다. 특히 방문 빈도, 교류 인물, 지역적 이동 등을 분석하여 조공섭의 지식인 네트워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단순한 기록물로서의 일기가 아닌, 한 지식인의 사회적 실천과 학문적 교류의 실증적 증거로서 『深齋日記』의 자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근대 전환기 조선 지식인의 대응 방식을 미시사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거시적 역사 서술에서 간과되기 쉬운 개인의 능동적 실천과 대응 양상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嶺南 지역 내의 활동 양상과 교류 네트워크

1) 昌寧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활동과 네트워크

본 장에서는 『深齋日記』에 기록된 방문 지역과 인물 교류의 기록을 기반으로, 조공섭의 초기 활동 반경과 지식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방문 빈도의 정량적 분석과 교류 인물의 학맥·지연·혈연 관계 파악을 통해 그의 지식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회적·문화적 기반을 살펴볼 것이다.

『深齋日記』의 초기 기록은 조공섭이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머물던 시기로, 4명의 스승인 金興洛, 張福樞, 李種杞, 郭鍾錫을 찾아가 수학했던 여정 외에는 창녕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이 시기 그의 일상적 활동과 교류는 대부분 창녕군 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일기에 기록된 방문 빈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2) 조공섭이 4명의 스승을 찾아가 수학했던 여정에 대해서는 전송희, 위의 논문(2024), 61-128쪽에 자세하다.

지역적 분포를 보인다.

<표 1> 1898년~1913년 동안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

왕래지역	행정구역	방문 빈도	주요 관련 인물
晩村(永慕齋)	창녕군 高岩面 億萬里	67회 ³⁾	孫景基(1869~?)
澗巖(澗赤)	창녕군 高岩面 澗上里	63회 ⁴⁾	張承杓(1875~1942) 張世杓(1883~1957)
桂八	창녕군 高岩面 桂上里	40회 ⁵⁾	金浩龜(1833~1904)
月未	창녕군 高岩面	38회 ⁶⁾	光州盧氏 집안
栢山	창녕군 이방면	28회 ⁷⁾	成遠永(1878~1942)

위의 표에 제시한 것은 『深齋日記』의 시작인 1898년부터 1913년까지의 기록 중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가장 여러 차례 방문했던 곳은 晩村이다. 만촌은 조공섭의 고향인 원촌리와 멀지 않은 마을로, 조공섭이 남긴 작품과 기록들을 참조하면, 만촌에 살았던 孫景基와 가까웠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손경기는 만구

3) 晩村은 모두 60회이다. 1901년 10회, 1902년 7회, 1903년 7회, 1905년 3회, 1906년 3회, 1907년 9회, 1909년 6회, 1910년 8회, 1911년 1회, 1912년 6회, 1913년 4회이다. 永慕齋는 모두 7회이다. 1901년 1회, 1908년 5회, 1909년 2회, 1913년 1회(7월)이다.

4) 澗巖(澗赤)은 모두 63회이다. 1901년 5회, 1902년 4회, 1903년 8회, 1904년 1회, 1906년 4회, 1907년 1회, 1908년 4회, 1909년 5회, 1910년 8회, 1911년 2회, 1912년 8회, 1913년 13회이다.

5) 桂八은 모두 40회이다. 1901년 8회, 1902년 4회, 1903년 4회, 1905년 9회, 1906년 2회, 1907년 2회, 1908년 3회, 1909년 2회, 1910년 1회, 1911년 2회, 1913년 3회이다.

6) 月未은 모두 38회이다. 1901년 4회, 1902년 3회, 1903년 2회, 1905년 4회, 1906년 4회, 1907년 4회, 1908 4회, 1909년 3회, 1910년 2회, 1911년 2회, 1912년 3회, 1913년 3회이다.

7) 栢山은 모두 28회이다. 1901년 2회, 1902년 1회, 1903 4회, 1905년 5회, 1906년 8회, 1907년 1회, 1908년 3회, 1913년 1회, 1909년 2회, 1910년 1회이다.

이중기의 제자로 조공섭과 同門인 셈이다. 『深齋日記』에는 ‘仁仲’이라는 字로 자주 등장하는데, 일기에서 조공섭이 손경기가 사는 마을을 방문할 때는 ‘如晚村’으로, 손경기가 조공섭을 방문할 때는 ‘仁仲來’라고 기록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여기에 만촌 손씨의 재실인 永慕齋까지 포함하면 이들 간의 교류 빈도는 전체 방문 기록 중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다.

조공섭과 손경기, 두 사람의 관계는 집안 간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조공섭은 관례를 마친 뒤 손경기의 부친인 孫炳武에게 수학하였고, 이러한 인연이 이어져 두 사람은 지속적인 교류를 나누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공섭은 영남의 큰 스승인 김홍락, 장복추, 이중기, 곽중석에게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889년 처음 곽중석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고향인 창녕에서 부친인 曹柄義(1842~1911)와 손병무 등 마을의 어른들에게 학문을 배웠던 것이다.⁸⁾

이후 고향 창녕에서 지내던 젊은 시절 동안 조공섭은 이웃해 살던 손경기와 수차례 서로의 거처를 오가며 교류하였고, 그 선조의 문집을 교감하는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으며,⁹⁾ 자신을 찾아온 벗과 함께 손경기 집안의 재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한 교류 양상은 이후로도 이어져 조공섭이 창녕을 떠나기 한해 전인 1913년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손씨 집안과의 교류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집안 간의 인연과 지역 공동체 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儉菴集』 교감 작업에 조공섭이 참여하고, 손씨 가문의 재실의 기문을

8) 曹兢燮, 『巖棲集』 卷20, 「永慕齋記」 “去吾里數弓許則有晚村孫氏莊。孫氏之居於昌, 自僉正公始, 至今可十四五世, 其麗不甚蕃, 然家世以清素稱。至儉庵先生, 躬行隱德……中世寢貧弱, 事力不能具儀文, 及處士公出則慨然以爲己憂, 與諸族謀所以整理之, 靡曰不可者……公於是總其務而操之, 凡若干月日而成。然猶蓋以茨也。後又若干年而瓦之, 門垣廡庫畢備。因其舊號而揭之曰永慕齋, 言其慕之遠也……公既沒而諸子孫遵其法無失, 次胤景基與余善, 一日語余曰先人作而不居其功, 後之人其或莫之徵也, 子其記之。”

9) 『深齋日記』 1898년 3월 13일. “勘儉菴集記”

쓰는 활동 등은 그가 지역 지식인으로서 일정한 문화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방문 횟수가 많았던 곳은 澗巖이다. 간암은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를 말하는데, 이곳은 夏山張氏의 세거지가 있는 곳으로 조공섭은 집안 간의 인연을 시작으로 어린 시절부터 장씨 집안의 재사인 간암재를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¹⁰⁾ 이후 張承杓(1875~1942), 張世杓(1883~1957) 형제와의 교유가 이어졌는데, 장승표는 곽중석의 문인이며 장세표는 조공섭의 문인이다. 지역 내 집안 간의 인연으로 시작해 학문적 인연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다음으로 자주 왕래하였던 곳은 桂八이다. 계팔은 瑞興金氏인 寒暄堂 金宏弼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그 중 조공섭은 김굉필의 후손인 碧桂 金浩龜(1833~1904)와 인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深齋日記』에 ‘碧桂丈來’라는 기록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 조공섭이 지은 묘지명을 보면 부친 조병의와 김호귀가 重表親으로 생전에 가까이 교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그러한 사실은 일기에서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김호귀가 창녕을 자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조공섭과 부친 또한 수차례 계팔을 찾았고, 며칠 그곳에 머물기도 하며 집안간의 교류를 이어 갔다. 이후로 계팔 마을 인물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곳에 살던 인물인 ‘贊道’가 자주 조공섭의 거처를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贊道’는 金熙達(1882~1967)로 김호귀의 손자이며, 또한 조공섭의 族祖 曹有贊(1860~1934)의 문인이다. 뒤에 김호귀의 묘지명을 조공섭에게 부탁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선대의 인연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月未는 광주노씨 집안의 세거지가 있던 곳으로 조공섭의 장인 장모가 살던 곳이다. 즉 혼인 관계를 통한 왕래가 자주 이루어진 지

10) 曹兢燮, 『巖棲集』 卷20, 「澗巖齋重建記」, “惟張氏與吾族接而居, 婚姻相世, 學業相師, 故自余弁而遊息于是齋者殆無虛月, 及入山而至稍簡焉.”

11) 曹兢燮, 『巖棲集』 卷27, 「碧桂軒金公墓誌銘【甲寅(1914)】」

역인 것이다. 栢山은 조공섭의 고종사촌들이 있던 곳으로 그 중 成遠永(1878~1942)은 만구 이종기의 제자로서 조공섭과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유대감을 이어갔다. 또한 이후 성순영은 조공섭의 문인이 되어 조공섭의 곁에서 수학하며, 조공섭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深齋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공섭의 초기 행적과 교유 양상은, 그가 고향인 창녕을 기반으로 일정한 생활권 내에서 지역 지식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의 방문 지역과 교류 인물은 대부분 가족, 문중, 친인척, 그리고 동일 지역 출신의 문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 유교 지식인 특유의 지역 기반적 활동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교유가 단순한 사교적 방문이 아니라, 문집 교감, 재실 기문 작성, 제자 양성, 의례 참여 등 다양한 문화적·교육적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공섭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지식 생산자이자 문화적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深齋日記』에 나타난 간결한 메모 형식의 기록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일정한 규칙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구조를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조공섭은 근대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지역에 뿌리내린 유교적 실천, 사제 관계에 기반한 학문 활동, 문중·향촌 사회 내에서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행적과 교유 모두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공간적 이동과 교류 범위의 확장을 통해 구체화된다. 다음 절에서는 1904년 이후 조공섭의 행적과 교유 네트워크가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가에 대해 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嶺南 지역 내 외연 확장과 네트워크의 재편

1902년을 전후로 조공섭의 활동 반경에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전까지 창녕 중심이었던 왕래 지역이 점차 확장되어 밀양, 의령, 인흥, 달부 등 인접 지역 및 대구권역으로 이동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그의 학문적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교유 대상이 지역을 넘어 확장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 패턴의 변화는 조공섭의 학문적 네트워크가 창녕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넘어 영남 전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표 2> 1902년~1913년까지 주요 행적과 교유 양상의 변화

왕래지역	행정구역	왕래 횟수	주요 관련 인물
退老	밀양 북북면 퇴로리	30회 ¹²⁾	驪州李氏 집안 관련 인물
來濟	의령군 낙서면 내제리	42회 ¹³⁾	碧珍李氏 집안, 이종기 문인들
仁興, 達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인흥마을	65회 ¹⁴⁾	文永樸(1880~1930)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밀양의 驪州李氏 집안과의 교류이다. 조공섭이 밀양의 驪州李氏 집안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02년 5월 6일로 『深齋日記』에는 밀양 퇴로리에서 사람이 찾아왔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3일 뒤인 5월 9일 조공섭이 퇴로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러한 왕래가 1902년부터 1905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이어진다.¹⁵⁾ 당시 여주이

12) 退老의 왕래 횟수는 30회이다. 1902년 5회, 1903년 13회, 1905년 5회, 1906년 1회, 1911년 1회, 1912년 2회, 1913년 3회이다.

13) 來濟의 왕래 횟수는 42회이다. 1902년 2회, 1903년 1회, 1905년 10회, 1906년 3회, 1907년 3회, 1908년 8회, 1909년 4회, 1911년 4회, 1912년 1회, 1913년 6회이다.

14) 仁興, 達府의 왕래 횟수는 65회이다. 1906년 4회, 1907년 6회, 1908년 4회, 1909년 19회, 1910년 5회, 1911년 10회, 1913년 17회이다.

15) 전승희, 앞의 논문(2024), 152-161쪽 참조.

씨 집안에서는 省軒 李炳燾(1859~1938)의 주도로 문중에서 영남에서 학자로 이름이 알려졌던 조공섭을 초청해 집안의 자제들을 교육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는 이병희의 아들인 李世衡(1883~1931), 修齋 李炳鯤(1882~1948), 사위인 金綱東(1888~1972) 등이 있었다. 이 3년 동안 조공섭은 여주이씨 집안의 別業인 西臯精舍를 오가며 四書 외에도 『心經』, 『朱子大全』, 『退溪集』 등을 강학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오랜 사제의 연을 맺기도 했다. 여주이씨 집안의 자제들은 물론이고, 사위인 金綱東(1888~1972)의 경우 더욱 각별한 사제 관계로 이어졌다. 일기에는 그의 字인 ‘章叟’로 기록되어 있고, 서고정사에서 강학이 끝난 뒤에도 창녕으로 직접 조공섭을 찾아왔던 인물이다. 김경동은 省軒 李炳燾(1859~1938)의 사위로 창녕군 高岩面 桂上里 冶洞에서 태어났다. 조공섭과는 동향인인 셈이다. 또한 앞서 조공섭이 桂八 마을의 서흥 김씨 집안과 자주 교유하였던 사실을 살핀 바 있다. 그러한 인연이 바탕이 되어 김경동은 퇴로를 찾은 조공섭과 처음 사제의 연을 맺고, 이후로 조공섭이 세상을 떠나던 1933년까지 꾸준히 스승인 조공섭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사제의 연은 벽사 이우성이 쓴 김경동의 묘갈명에서 또한 확인된다.¹⁶⁾ 서고정사에서 3년 동안의 강회를 마치고 조공섭이 창녕으로 돌아간 뒤 동향인이었던 김경동은 창녕으로 직접 조공섭을 찾아가 執贄의 예를 갖추어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김경동은 한 해에만도 수차례 조공섭이 있는 창녕을 찾았으며, 조공섭이 밀양을 방문하면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것처럼 김경동이 부지런히 조공섭을 찾아가 수학했던 모습은 조공섭이 鼎山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로도 이어졌다. 현재 조공섭의 문집인 『巖棲集』에는 김경동과 관련해서는 단 한 편의 편지만이

16) 이우성, 『碧史館文存』, 「明軒金公墓碣銘」 “我家嘗邀深齋曹公兢燮, 館于西臯精舍, 我伯父一亭公, 暨我再從祖退修齋諸公, 相與肄業, 公被提携左右於其間, 聞見益廣, 曹公歸, 公以同鄉也, 遂趨其門下, 執弟子禮焉.”

수록되어 있지만,¹⁷⁾ 『深齋日記』를 살펴보면 이 시기 조공섭과 매우 자주, 그리고 깊이 교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밀양 지역으로의 교류 확장은 조공섭의 학문적 위상이 향상되면서 지역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여주이씨 집안과 같은 명문가에서 그를 초청하여 자제들을 교육시켰다는 사실은, 조공섭이 단순한 지역 유학자를 넘어 영남 지역에서 인정받는 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방문 횟수가 늘어난 곳은 來濟이다. 내제는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으로, 碧珍李氏의 집성촌이 있는 곳이다. 조공섭은 이곳 내제에 거주했던 李敦厚(1870~1897), 李澈厚(1874~1934) 등 碧珍李氏 인물들과 교류했는데, 이돈후는 사미헌 장복추의 문인으로, 조공섭과 동문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이철후는 형 조용섭의 사위이다. 또한 이철후의 아들 李元斌(1899~1967)은 조공섭의 문인이다. 조공섭이 내제를 처음 방문한 것은 1898년 3월, 만구 이종기의 낙동강 강회 당시 내제에서 머물렀고,¹⁸⁾ 1903년 이후부터 내제를 방문하거나 내제에 살던 인물들이 조공섭을 찾아오며 교류했던 사실이 일기로 확인된다.

1908년 이후에는 대구 지역의 仁興과 達府의 방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조공섭의 네트워크가 밀양을 넘어 대구권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흥 방문의 배경에는 壽峯 文永樸(1880~1930)이 있었다. 문영박은 晚求 李種杞의 제자로, 조공섭과는 문우이며 뒤에 조공섭의 鼎山 이주에도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두 사람의 교류는 1906년부터 한 해에 몇 차례 이어지다가 190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로의 거처를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공섭이 처음 인흥을 방문한 것은 1906년 9월 16일로,¹⁹⁾ 이 당시는 스승 김홍락

17) 曹兢燮, 『巖棲集』 卷13, 「答金章叟【綱東○乙丑(1925)】」

18) 曹兢燮, 『巖棲集』 卷1, 「泛舟洛江賦【戊戌(1898)】」, “李重立重可邀入來濟宿, 茲遊之勝, 在今日難得, 而重載之亡, 已經一暮矣. 令人追念, 不覺隕涕.”

19) 『深齋日記』 1906년 9월 16일. “昏至仁興.”

의 문집을 교감하기 위해 金溪로 향하던 중 도중에 인흥을 방문했다. 이후 이를 시작으로 1907은 3차례, 1908년은 2차례, 1909년 일기에는 무려 19차례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부친상이 끝난 1913년에는 16차례 왕래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이기로, 孔錫圭(1873~1948), 盧元容(1878~1936), 成遠永(1878~1942)과 함께 인흥 일대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들은 모두 만구 이종기의 문하생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네 명의 스승을 두었던 조공섭은 스승을 매개로 문인들과 교류가 활발했는데, 특히 이 무렵 만구 이종기 문하의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기의 자료는 조공섭의 교유 확장이 자신의 학맥, 특히 이종기 문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 또 하나의 큰 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지표인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深齋日記』의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당시의 만남은 단순한 인적 접촉을 넘어, 조공섭이 어떠한 학문적, 사상적 기반 위에서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교유는 우연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스승을 통한 학문적 전통의 계승, 문우들과의 정기적 교류, 그리고 제자들과의 교육적 실천이라는 연속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일기에 기록된 반복적인 방문 패턴이나 특정 인물들과의 지속적 교류는 단순한 사회적 만남이 아닌, 학맥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유의미한 관계망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우 및 제자들과의 교류는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지역 사회에서 구체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深齋日記』에 기록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문과 초청, 문집 교감, 사당 및 재실 운영에 대한 참여는 단지 사교적 만남에 그치지 않고, 유교 지식인의 사회적 실천과 문화적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조공섭이 지식의 전달자이자 지역 문화의 조직자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일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조공섭은 창녕이라는 공간적 기반에서 출발하여, 점차 인근 지역

으로 교유의 외연을 넓히며, 보다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이는 단순한 향촌 공동체 내 친목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 아니라, 유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책무를 구현하고, 자신의 학문적 위치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기에 나타난 지역적 이동의 확장과 인물 교류의 다양화는 근대 전환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인의 적응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는 전통적 학문 질서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면서도, 지역을 넘어서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적응해 나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深齋日記』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鼎山 이주와 네트워크 확장 과정

1) 鼎山 이주와 지식인 네트워크의 재편

1914년 조공섭은 부친의 3년 상을 마치고 고향 창녕을 떠나 대구 달성군 가창면 鼎垌里로 거처를 옮겼다. 이 이주는 단순한 거주지 변경이 아닌, 전통 지식인으로서 은거와 강학을 위한 의식적 선택이었다. 이주의 여정과 당시 이주를 두고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는 전송희(2024) 161~166면을 참조.

<표 3> 1914~1931년 동안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

왕래지역	행정구역	왕래 횟수	주요 관련 인물 및 장소
仁興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인흥마을	116회 ²⁰⁾	文永樸(1880~1930)
大巖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35회 ²¹⁾	孫廷闇(1838~1917)
元村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42회 ²²⁾	고향
豆谷	창녕군 남지읍	27회 ²³⁾	부친의 묘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그의 일상과 교유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다. 『深齋日記』의 기록을 보면 이 시점부터 활동 반경이 대폭 확장되며, 방문 지역과 왕래 인물의 지리적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자주 방문했던 장소는 仁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흥은 정산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자주 방문하였던 곳이었는데, 이주 후에는 인흥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관련하여 다수의 작품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기록들을 참조해보면 인흥에 머무르며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문영박의 수봉정사 안에 있는 광거당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는 卞鼎相(1861~1935)·卞榮晩(1889~1954) 부자와 면우 곽종석의 문인이었던 金銖(1890~1943), 만구 이종기의 삼종질이자 문인인 李基魯, 조궁섭의 제자인 成純永(1896~1970) 등이 참여했다.²⁴⁾ 在京지식인 변정상·변영만 부자부터 곽종석, 이종기의 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과 학맥을 기반으로 한 인물들이 한데 모였던 것이다.

특히 살펴볼 것은 변정상과 교유했던 기록이다. 그간 조궁섭의 교유양상에 대해서는 재경 지식인 변영만과 주고받았던 서간을 중심으로 문장관에 대한 논의가 검토된 바 있는데,²⁵⁾ 『深齋日記』를 통해 부친 변정

20) 1914년 이후 仁興의 왕래 횟수는 116회이다. 1914년 16회, 1915년 21회, 1916년 3회, 1917년 5회, 1920년 11회, 1922년 18회, 1923년 21회, 1924년 15회, 1926년 8회이다.

21) 大巖의 왕래 횟수는 35회이다. 1914년 4회, 1915년 9회, 1916년 2회, 1917년 4회, 1920년 4회, 1922년 4회, 1923년 4회, 1924회 3회, 1926년 1회이다.

22) 元村의 왕래 횟수는 42회이다. 1914년 1회, 1915년 5회, 1920년 2회, 1922년 7회, 1923년 3회, 1924년 10회, 1926년 5회, 1927년 3회, 1928년 6회이다.

23) 豆谷의 왕래 횟수는 27회이다. 1914년 1회, 1920년 6회, 1922년 2회, 1923년 6회, 1924년 6회, 1926년 2회, 1927년 2회, 1928년 2회이다.

24) 曹兢燮, 『巖棲集』卷5, 「廣居堂歲初之會拈韻而未賦 士文歸致八首 各有所屬 汝重繼和之 余以兄服久未構思 晚乃有酬 然田地爲二君所占 牽勉可愧」

25) 김진균, 「변영만의 문예의식 -조궁섭과의 고문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

상과의 인연이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그리고 『深齋日記』에서 변정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20년 12월 21일이다.²⁷⁾ 보다 앞선 12월 16일 조공섭이 인흥을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²⁸⁾ 인흥에서 변정상을 만난 뒤 며칠 뒤 함께 조공섭의 거처로 온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1919년 무렵 광거당에서 변정상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교유가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광거당과 정산 등에서 19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또한 1922년에는 조공섭이 창녕을 방문할 당시 함께 했으며,²⁹⁾ 1927년에는 마산과 진주 일대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³⁰⁾ 그 과정에서 변정상이 자신의 아들인 변영만을 조공섭에게 부탁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조공섭에 대해 익히 들었던 변영만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교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변영만은 조공섭과 문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또한 조공섭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며 『오가문초』에 조공섭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자주 방문했던 곳은 大巖이다. 대암은 조공섭이 이주했던 정대리에 있는 마을로 孫廷闇(1838~1917)이 거처하던 곳이다. 손정은은 크게 알려진 사실이 없지만, 조공섭이 쓴 제문을 보면 은자로서 명망이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³¹⁾ 조공섭이 처음 대암을 방문했던 것은 1908년이며, 일기를 참조하면 8월 20일 무렵이다. 1915년에는 朴載憲

구』 23,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3 ; 한영규, 「식민지시기 한문문장가 계보의 일단-변영만편 『오가문초』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회지』 33, 대동한문학회, 2010 참조.

26) 두 사람의 교유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19년 조공섭이 지은 시로, 이때 인흥 광거당에서 변정상과 함께 머물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曹兢燮, 『巖棲集』 卷5, 「秋晚留廣居堂 同汝重【五首】」

27) 『深齋日記』 1920년 12월 21일. “同汝重暮歸.”

28) 『深齋日記』 1920년 12월 16일. “如仁興.”

29) 『深齋日記』 1922년 9월 5일. “乘車至玄邑” 9월 6일. “同汝重子中 至元村道泉”

30) 『深齋日記』 1927년 5월 9일. “回霧庭聖律 乘車至馬山”

31) 曹兢燮, 『巖棲集』 卷25, 「祭孫隱君文【丁巳(1917)】」

(1875~1926), 李炳國(1882~1952)과 함께 대암을 방문했는데, 박재현은 경북 영해에 살았던 인물로 서산 김홍락의 문인이며, 이병국은 李中立(1860~1892)의 아들이다. 이중립은 진성이씨로 퇴계의 후손이며 경북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중립의 재실인 육이당이 현재 남아 있으며, 조공섭이 기문을 쓴 글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³²⁾ 인홍과 달리 이곳에서는 주로 서산 김홍락을 중심으로 한 퇴계 집안, 그 문하의 인물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다.

그 외 원촌과 두곡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원촌은 조공섭의 고향인 창녕 원촌리이고, 두곡은 조공섭의 부친 조병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정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고향을 꾸준히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향 창녕에서의 인연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정산 이주 직후 가장 빈번히 방문한 인물은 퇴로에서 인연을 맺었던 제자 김경동으로, 그는 이주 과정에서도 동행했으며, 이후 정산서당의 핵심 제자가 된다. 이어서 이웃 마을에 살았던 知友 손경기, 집안 간의 인연으로 교류를 이어간 김희달 등이 자주 방문하는데, 이들은 학문적 동료이면서 고향 창녕에서의 인연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어 서신을 통해 가장 교류가 빈번했던 것은 중국 南通으로 망명해 있던 滄江 金澤榮이다. 두 사람 사이 편지가 처음 오가기 시작했던 것은 1913년 12월이며, 1923년까지 지속되었다. 일기에는 ‘付通州書’, ‘通州書來’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무려 49차례 편지가 오갔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에 남아 있는 편지의 내용은 주로 김택영의 출판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조공섭은 그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뒤에 김택영이 편찬한 역사서인 『한사경』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끝까지 김택영을 변호하며 신의를 지키기도 했다.³³⁾

32) 曹兢燮, 『巖棲集』 卷20, 「六怡窩記」

33) 조공섭과 김택영의 교류의 전모에 대해서는 전송희, 위의논문(2024), 190-207쪽을 참조.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산 이주 직후 조공섭의 교유 네트워크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창녕 중심이었던 네트워크는 대구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기존 관계와 새로운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재경지식인 변정상, 변영만 부자와 망명지식인 김택영 등 영남을 벗어나 여러 지역의 인물들과 교유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기의 기록에는 영천, 충주, 통영, 단성 등 다양한 지역의 인물들이 방문하였던 사실 또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과 재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근대 전환기 지식인의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조공섭의 정산 이주는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은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통적 은거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닌, 오히려 학문적 자율성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이었음을 보여준다. 일기에 기록된 빈번한 방문객과 서신 교환은 정산이 단절된 공간이 아닌, 오히려 다양한 지역과 학맥을 잇는 지식 교류의 허브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유 네트워크의 지리적 확장은 조공섭의 사상적 지평 확장에도 맞물려 있다. 변영만과의 문장론 논쟁, 김택영의 출판활동에 참여하는 등은 조공섭이 향촌 지식인의 범주를 넘어 당대 지성계의 주요 담론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망명 지식인 김택영과의 49차례에 달하는 서신 교환은 조선 내부를 넘어선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당대 정세와 학문을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深齋日記』가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근대 전환기 지식인의 사상적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미시사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을 입증한다.

셋째, 조공섭의 네트워크 확장은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통적 학맥과 지연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재경 지식인 변정상·변영만 부자와 같은 새로운 인물들과

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적 자극과 교류를 추구했다. 이는 근대 전환기 유교 지식인의 적응 전략이자 생존 방식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정산으로의 이주와 네트워크 재편은 궁극적으로 정산서당이라는 새로운 교육 공간 건립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은거를 넘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전통 학문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조직적 실천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정산서당의 건립과 그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鼎山書堂 건립과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

정산으로 이주를 선택했던 조궁섭은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와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서실을 증축해 鼎山書堂으로 확장하여 강학활동을 이어갔다. 시기는 1919년에서 1920년 사이로 서당건립에 대해 창강 김택영이 쓴 시와 난곡 이견방이 쓴 기문이 남아 있다. 특히 이견방의 기문에는 서당을 건립할 당시의 사정과 서당의 규모 등이 상세히 쓰여 있다.³⁴⁾ 그리고 일기에는 이 무렵 찾아왔던 인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표 4> 1920~1931년 동안 정산서당을 방문한 인물

姓名	字	출신지	비고
金綱東(1888~1972)	章叟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
成純永(1896~1970)	一汝	창녕군 이방면 백산	『厚堂集』
河性在(1901~1970)	敬初	청도군 면천면 임당리	『臨堂集』
朴紀鉉(1898~?)	漢叟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迥齋遺稿』
郭鍾謙(?~?)	公益	함천군 울곡면 내전리	-

34) 李建芳, 『蘭谷存藁』 卷4, 「鼎山書堂記」

정산서당을 방문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조공섭의 문인이었다. 먼저 가장 방문횟수가 많았던 인물은 章叟, 즉 金綱東이다. 김경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양 퇴로에서 조공섭이 여주이씨 집안의 자제들을 가르치던 당시 제자의 인연을 맺었던 바 있다. 그리고 뒤에 정산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꾸준히 조공섭을 찾아와 수학하였는데, 이 무렵 『深齋日記』를 통해서도 김경동이 정산을 방문하면 5일 이상 머무르며 스승의 곁에서 학문을 수학하였던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산서당이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닌, 체계적인 학문 수련의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一汝, 즉 成純永이다. 성순영은 조공섭의 제자 중 가장 알려진 인물로 창녕에서 조공섭과 인연을 맺고 꾸준히 조공섭에게 수학하였던 인물이다. 정산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사제의 연을 이어갔다. 또한 조공섭이 교유했던 인물 대부분과 인연을 맺었는데, 대표적으로 창강 김택영, 경재 이진승 등 망명지식인을 비롯해 산강재 변영만, 난곡 이진방 등 재경지식인과의 폭넓은 교류 관계를 형성하였다. 창강 김택영과는 스승 조공섭의 글을 모아 『困言』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내는 것을 주도하였고 『困言』의 발문을 썼으며, 1919년 고종의 상복을 두고 조공섭과 간재 전우가 벌였던 논쟁의 과정을 담은 서간의 내용을 정리한 책인 『服辨』의 발문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문집 편찬 활동은 단순한 출판 작업이 아닌, 스승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화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지적 실천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성순영은 재경 지식인인 변영만, 이진방과는 서울로 거처를 옮기며 더욱 가까이 교유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스승인 조공섭을 통해 학문 수학뿐만 아니라 폭넓은 교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정산서당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식인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성순영과 함께 조공섭의 제자 중 손꼽히는 인물은 敬初, 즉 하성재이

다. 하성재는 1918년 문목을 작성해 조공섭에게 가르침을 청했으며,³⁵⁾ 『深齋日記』를 통해 조공섭이 정산서당을 건립한 1920년 12월 12일부터³⁶⁾ 꾸준히 정산을 찾아와 수학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공섭은 창강 김택영과 경재 이진승에게 하성재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진승에게는 하성재가 쓴 시를 보내 가르침을 부탁하기도 했다.³⁷⁾

다음으로 보이는 인물은 漢叟, 즉 朴紀鉉이다. 박기현은 창녕군 이서면 수야리에 살았던 인물로 1920년 9월, 즉 조공섭이 정산서당을 건립한 이후 정산을 처음 방문했다. 이후 조공섭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꾸준히 정산을 방문하며 수학하였던 제자이다. 그 외 공익, 즉 曠宗猷가 찾아왔던 기록 또한 적지 않게 보인다. 曠宗猷는 합천군 울곡면 내천리에 살았던 인물로 『深齋日記』에는 1923년부터 보이는 인물이다.

제자그룹 외에는 章之, 즉 文永樸이 가장 자주 방문하였고, 인흥 지역에 살았던 孫本遠과의 교류도 자주 기록되어 있다. 손본원과는 인흥으로 이주하기 전 이웃해서 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³⁸⁾ 실제로 인흥으로 거처를 옮긴 뒤 자주 왕래하였던 것이 일기를 통해 확인된다. 이들의 방문은 정산서당이 단순히 스승-제자 관계의 교육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 지식인들의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深齋日記』에 기록된 정산서당 시기 조공섭의 인적 네트워크가 단순한 은거가 아닌, 적극적인 학문적 교류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지리적으로는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그 공간이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제자들의 방문과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합천, 함

35) 曹兢燮, 『巖棲集』 卷15, 「答河敬初 性在 問目 【戊午(1918)】」

36) 『深齋日記』 1920년 12월 12일. “敬初來.”

37) 曹兢燮, 『巖棲集』 卷5, 「重陽日 奉和耕齋李丈寄河生韻 三首」

38) 曹兢燮, 『巖棲集』 卷4, 「仁興同中大 時余有卜隣之約」

안, 진주, 통영 등 여러 각지에서 방문한 이들이 교류하며 지역과 학맥을 넘어 포괄적인 지식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가운데 조공섭은 전통적 스승-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자들이 자신을 통해 더 넓은 지식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자임했다. 성순영, 하성재와 같은 제자들이 스승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지식인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공섭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지식인 공동체의 조직자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深齋日記』에 기록된 정산 이주 후의 조공섭의 교유와 활동은 전통과 변화의 교차점에 선 지식인의 능동적 대응 전략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세속과 거리를 두는 은거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조공섭은 전통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산서당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근대 전환기 유교 지식인의 생존과 적응 전략이 구현된 문화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深齋日記』를 중심으로 근대 전환기를 살았던 深齋 曹兢燮의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과 시대적 대응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공섭이 남긴 일기는 내면적 서술이 부족한 메모형식의 일기이지만, 33년에 걸친 방대한 분량과 일관된 기록 방식을 통해 그의 삶의 궤적과 지식인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공섭의 지식인 네트워크는 시기에 따라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 창녕 시기(1898~1903)에는 혈연, 지연, 학맥을 기반으로 한 전

통적 교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만촌의 손경기와 같은 집안 간 인연, 간암의 장승표·장세표와 같은 지역 내 가문 간 교류, 계팔의 김호귀와 같은 부친의 인맥 등은 전통적 유교 지식인의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이 시기 조공섭의 활동은 문집 교감, 재실 기문 작성, 향촌 의례 참여 등 지역 공동체 내 전통적 지식인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

1904년 이후 조공섭의 네트워크는 영남 지역 내에서 점차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밀양의 여주이씨 집안과의 교류, 의령 내제 지역 방문, 대구 인흥과 달부 지역으로의 활동 범위 확대는 그의 학문적 위상이 향상되면서 지역적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 만구 이종기 문하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학맥 중심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914년 정산 이주 이후에는 네트워크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창녕 중심이었던 네트워크는 대구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재경 지식인 변정상·변영만 부자, 망명 지식인 김택영 등 영남을 넘어선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인물들과 교류하게 된다. 특히 김택영과의 49차례에 달하는 서신 교환은 그의 교류가 영남을 넘어 국외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19~1920년 정산서당 건립 이후에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김경동, 성순영, 하성재, 박기현 등 제자들이 정산서당을 중심으로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조공섭은 전통적 스승-제자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제자들이 더 넓은 지식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은 단순한 인적 교류의 확장이 아닌, 근대 전환기 지식인의 능동적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조공섭의 시대적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조공섭의 정산 이주는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은거의 형식을 취하

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공섭의 이주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닌, 오히려 학문적 자율성과 영향력을 확보하며 시대적 문제에 적극적 실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작용했다. 일기에 기록된 빈번한 방문객과 서신 교환은 정산이 단절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학맥을 잇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통과 변화의 균형적 추구이다. 조공섭은 전통적 학맥과 지연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인물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적 자극과 교류를 모색했다. 이러한 균형적 태도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보수적 인물로 평가되었던 조공섭이 실제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식인 네트워크의 매개자 역할이다. 조공섭은 단순한 지식 생산자나 전달자가 아닌, 다양한 지역과 학맥,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기능했다. 제자들에게 망명 지식인, 재경 지식인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문집 편찬과 교감 작업에 참여시키는 등의 활동은 지식 네트워크의 확장과 재생산에 기여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 지식인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深齋日記』에 기록된 조공섭의 교유와 활동은 전통과 변화의 교차점에 선 지식인의 능동적 대응 전략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세속과 거리를 두는 은거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조공섭은 전통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공섭의 사례는 근대 전환기 한국 지성사에서 전통과 근대의 단절이 아닌, 연속과 변용을 통한 지적 전통의 재구성 과정을 미시사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深齋日記』라는 단일 자료에 기초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공섭의 학문적 저술과 일기에 나타난 활동의 연관성 등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인물들의 문집 자료를 통해 영남 지식인 네트워크 양상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남아 있다. 이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深齋日記』(남명학교문헌자료실)
『巖棲集』(고전번역DB)
『蘭谷存藁』(국립중앙도서관)

2. 단행본

- 이우성, 『碧史館文存』

3. 논문

- 강동욱, 『심재 조공섭의 학문성향과 文論』,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강구율, 「심재 조공섭의 시세계의 한 국면: 기행시와 영사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22, 동방한문학회, 2002, 67-84쪽.
- 김낙진, 「曹兢燮의 共和主義 비판과 朱子學적 근거: 梁啓超 비판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3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261-294쪽.
- 김진균, 「심재 조공섭의 도덕문장 추구논리」,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101-122쪽.
- 송혁기, 「曹兢燮의 金澤榮 諸家文評 비판과 그 비평사적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155-189쪽.
-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123-149쪽.
- 유영옥, 「深齋 曹兢燮의 非共和論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299-329쪽.

- 임종진, 「深齋 曹兢燮의 修養論」, 『영남학』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45-72쪽.
- 전송희, 「『深齋日記』의 자료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2022, 35-68쪽.
- _____, 「국권상실 이후 주변부 전통지식인 曹兢燮의 현실 인식과 대응양상」, 『남명학연구』 65,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131-162쪽.
- _____, 『심재 조공섭의 성학과정과 학적 실천 -『深齋日記』를 토대로 한 생애사적 고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한영규, 「식민지시기 한문문장가 계보의 일단-변영만편 『오가문초』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회지』 33, 대동한문학회, 2010, 101-131쪽.

<Abstract>

The Intellectual Networks and Adaptive
Strategies of Simjae Jo Geung-seop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 Study Based on the Simjae Diary

Jeon, Song-hui*

This study examines the intellectual networks and adaptive strategies of Simjae Jo Geung-seop (1873-1933) during Korea's modern transition period through an analysis of his diary, "Simjae Diary" (深齋日記). By analyzing his personal interactions and geographical movements over 33 years as recorded in the diary, this research traces how Jo's intellectual networks formed and evolved. The study identifies three distinct phases in the development of his networks. First, during his early period in Changnyeong (1898-1903), his networks centered on local connections based on kinship, geographical proximity, and scholarly lineage. Second, after 1904, his sphere of activity expanded to Miryang, Uiryeong, and Inheung, facilitating broader exchanges with scholars throughout the Yeongnam region. Third, following his relocation to Jeongsan in 1914, his networks underwent a qualitative transformation as he began corresponding with intellectuals in Seoul and those in exile, particularly Kim Taek-young in China. The establishment of

* Pusan National University

Jeongsan Seodang (school) around 1919–1920 demonstrates that Jo functioned not merely as a recluse but as a mediator and organizer of intellectual networks. This study discovers the “paradox of seclusion” as a strategic response of Confucian intellectual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While outwardly adopting the traditional form of seclusion, Jo actively constructed extensive and multilayered intellectual networks. This case provides important micro-historical evidence of how intellectual traditions were reconstructed through continuity and adaptation rather than ruptur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Key Words: Simjae Diary, Jo Geung-seop, Jeongsan Seodang, modern transition period, intellectual networks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21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21일

